

# 이 유

## 1. 당사자 주장

### 가. 신청인의 주장

- 000 신축공사의 소음,분진으로 인해 002차아파트 주민인 저희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시공사인 000건설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긴 했지만, 이후에도 소음 문제는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음
- 공사 소음으로 인해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고 자연바람을 쐬기 힘든 상황이며 시끄러운 소음뿐만 아니라 분진으로 인한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여는 대신 에어컨을 틀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음
- 특히 거주하고 있는 210동은 신축 현장과 가깝고 주말 평일 구분 없이 공사를 하여 오전 7시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탓에 잠을 깨기가 다반사임
- 공사장 측에서 설치한 소음측정기를 확인해 보면 70~80데시벨까지 올라가며 법적 허용치는 65데시벨 이하인데 위반이며, 이를 구청에 확인결과 6번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받았음
- 이에 00002차아파트 주민으로서 6차례의 법적인 행정처분을 받고도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00건설의 행태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함

### 나. 피신청인의 주장

- 당 현장은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변 환경관리 및 민원관리에 성심을 다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
- 도로 및 주택가 인접부로 방음벽을 설치, 자동식 세륜기 및 이동식

- 고압살수기 운영, 가설도로 주위에 자동식 스프링클러 설치·운영, 주요 통로는 콘크리트 및 잡석 포장 등으로 환경피해 저감조치를 하였음
- 그 외에 토사 야적 시 방진덮개, 천공장비에 방진막 설치, 차량 저속운행, 자동소음 측정관리, 장비별 이동식 에어방음벽, 저소음 특수방법의 암파쇄공법 적용, 인접아파트에 드롭헤드시스템 및 갱폼방음판넬 적용으로 공사소음 피해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
  - 당 현장은 인접한 002차 래미안아파트에서 소음측정 시 기준초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으나, 신청인이 거주하는 00아파트 210동 1203호는 212동과 213동의 후면에 위치하고 당 현장과는 측벽 방향이 마주하고 있어 소음피해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
  -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7년 1월 착공 시부터 공사민원 저감 및 민원보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, 2018년 집행부 신규 선출 후 2018.1.15.과 2018.2.12. 협의를 진행하였고, 2018년 2월말부터 현재까지 합의서 문구 및 양식을 상호 검토하였으며, 임대대표는 보상합의 및 입주민 동의를 위한 내부협의를 진행중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바, 현재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보상합의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

## 2. 사실조사 결과

### 가. 분쟁지역 현황

- 분쟁지역은 주거지역으로, 인접한 곳에 지하철 0호선 00역이 위치하고 있으며, 신청인 주거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정온한 환경이며, 신청인은 대규모 아파트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사건임
-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, 내·외부 마감공사중이며, 신청인 아파트 거주지점과 피신청인의 공사현장과의 최단거리는

100m 이격됨

## 나. 피신청인 공사현황

- 공 사 명 : 000신축공사
- 연 면 적 : 57,998 $m^2$
- 규 모 : 지하3층,지상15층(8개동 356세대)
- 공사기간 : 2016.11~2018.10
- 시 공 사 : 00건설(주)

## 다.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 점검 결과

-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관할 행정기관(00구청 환경과)에 공사피해 등의 민원이 339차례 제기된 사실이 있으며, 14차례 공사장 생활소음을 측정하여 6차례 기준 초과되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음

## 3.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

### 가. 소음·진동 피해 평가

- 1) 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및 현장조사(전문가 조사결과 포함) 결과 등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정도를 평가하고자 함
- 2) 피신청인 공사현장과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의 이격거리는 소음 전파경로상 중요한 요소로서,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공사 공종별 장비 가동 및 작업위치가 가변적이고 이동하는 특성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음
- 3) 투입 장비별 소음레벨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「건설장비 및 기계류의 소음·진동도 조사연구사업 결과보고서, 2011」와 환경부 「공사장 소음·진동관리 지침서, 2006」, 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사전 배상기준, 2016」 등 관련자료를 참고하였음

#### 5) 소음피해 평가 종합의견

- 피신청인의 공종별 장비투입내역에 근거하여 공종별 장비가동 시 개별 장비가 발생하는 평균 소음도에 따라 신청인 건물까지 전달되는 합성 소음도를 검토한 결과 59.5dB(A)에서 64.2dB(A)로 검토되었음

### 나. 먼지 피해 평가

- 1)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대비하여 비산먼지의 확산 피해를 저감하고자 높이 3~6m의 RPP 방음벽과 분진망 설치, 공사 현장내·외부 살수차 운영, 고압살수기 운영, 자동식 세륜기 설치·운영, 자동식 스프링클러, 공사용도로 임시포장 등의 저감노력을 한 것으로 자료제출 되었으며, 통상적으로 이들 저감시설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용이 있었다면 일시적인 먼지발생이나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등으로 인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

## 4. 판 단

- 신청인 거주지에서 소음도 예측결과 최대 64.2dB(A)로 평가되어 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dB(A)이하로 평가되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통상의 공사 사례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·운영한 점 및 행정기관의 지도·점검에서 비산먼지로 인한 행정처분 등 지적받은 사실이 없는 점,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,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.

## 5. 결 론

-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, 관련서류, 전문가 의견,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